

자율 공동체를 응원하는 국가를 상상

「만물은 서로 돕는다」 (크로포트킨, 르네상스, 2005)

「꿈에서 왕으로: 국가 그리고 야만의 탄생」 (나카자와 신이치, 동아시아, 2005)

「국가는 폭력이다: 평화와 비폭력에 관한 성찰」 (레프 톨스토이, 달팽이출판, 2008)

사람의 본성은 우정과 연대

홉스는 자연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장소로 여겼습니다. ‘인간은 인간에 대해 늑대’라는 말처럼 그는 자연 상태의 사회를 약육강식이 판치는 승자독식 무대로 보았습니다. 그런 험난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고립된 개인이 안전을 보장받으며 살아가려면 힘이 있는 ‘국가’와 같은 존재가 필요합니다. 홉스가 말한 사회계약이란 한 개인이 국가에게 몇몇 권리를 넘겨주면서 어느 정도 자유를 포기하고, 대신 이를 넘겨받은 국가는 계약에 동의한 개인을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의 적절한 통제와 제한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약자를 수단 삼아 부를 증식하거나 특권을 누리는 이들 편에 서는 국가의 모습에 절망하기도 합니다.¹⁾ 때때로

1)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에서 더글러스 러미스는 지난 100년간 국가 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사람의 수는 약 2억 명이고 그 가운데 1억 3천 명 가량이 자국민이었다고 했다. 즉, 다른 나라에 의해 죽은 사람보다 자기 나라에 의해 죽임당한 수가 더 많았다.

개인과 공동체를 지나치게 간섭하는 국가의 존재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자주와 공생, 주체와 연대를 약하게 만드는 국가의 여러 장치(정책과 제도)가 우리를 더욱 사회 속에 외로운 개인으로 고립시키며, 의지할 곳 없어진 개인은 국가에 더욱 깊이 의존하게 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²⁾

「만물은 서로 돕는다」의 저자 크로포트킨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살았던 러시아 학자입니다. 그는 사회학이나 역사학, 지리학에 능통했습니다. 동물학도 그의 연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크로포트킨은 동식물과 예전 인간 사회에서 이어져 온 협력하는 모습을 통해 만물은 적자생존이 아니라 상호부조의 삶, 그런 방식으로 진화하고 발전해 왔다는 걸 이론으로 정리했습니다. 인간은 상호부조와 상호지원이라는 ‘사회적인 본성’을 지닌 존재임을 강조했습니다.

홉스는 자연을 생존을 위해 서로 죽이고 승자만이 살 수 있는 야만의 세계로 보았기에 ‘국가’라는 틀 속에서 계약관계로 있을 때만 평온하다고 했지만, 크로포트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으로 종의 멸종은 드문 일이며, 생존 경쟁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환경에 새롭게 적응하면

2) 「우리들의 하느님」, 권정생, 녹색평론사, 개정증보판

‘애국자가 없는 세상’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도 / 애국 애족자가 없다면 / 세상은 평화로울 것이다. //

젊은이들은 나라를 위해 / 동족을 위해 / 총을 메고 전쟁터로 가지 않을 테고 /

대포도 안 만들테고 / 탱크로 안 만들테고 / 핵무기도 안 만들테고 //

국방의 의무란 것도 / 군대훈련소 같은 데도 없을테고 / 그래서

어머니들은 자식을 전쟁으로 / 잃지 않아도 될테고

...

서 경쟁은 서서히 완화된다고 믿었습니다. 경쟁은 개체의 본성이 아니라 그 개체가 살아가는 지역의 상황에 따라 결정될 뿐이라 여겼습니다.

인간은 원래 사회적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상호부조와 상호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고립된 가족들이 생존 수단을 쟁취하기 위해 서로 싸우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역사상 어떠한 시기에도 찾아볼 수 없다. 「만물은 서로 돕는다」

크로포트킨은 이처럼 사람의 본성은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면서 사회를 유지해 온 상호부조임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종의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호경쟁이 아닌 상호부조, 즉 협동입니다.³⁾ 그는 이런 주장을 무척추동물, 개미, 꿀벌, 새, 설치류, 반추 동물, 원숭이, 기타 포유류 따위의 동물에서부터 야만인의 씨족과 군집, 미개인의 촌락공동체, 중세도시와 길드를 거쳐 근대의 인간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방대한 예를 찾아 근거로 삼습니다.

크로포트킨은 여러 개체가 경쟁보다 상호부조와 연대로 생존하고 진화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생존경쟁에서 개별적으로 살아남은 강한 개체가 진화하는 게 아니라, 약하더라도 군집을 이루어 상호부조해온 종이 결국 진화한다고 합니다. 사람도 그 본성인 상호부조와 연대에 의해 사회를 이루어 발전해왔고, 발전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정과 인정, 협력과 연대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본성을 주장한 그의 생각이 사회복지사인 우리에게 계도 깊이 와닿습니다. 사회사업도 그런 본성을 믿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3) “다윈은 적자생존을 말한 적이 없다. ...다윈은 오히려 "이기적이고 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로 뭉치지 못하지만, 협력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협력이 진화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유쾌한 혁명을 작당하는 공동체 가이드북」 (세실 앤드류)

개미들의 이런 힘은 상호지지와 상호신뢰에서 나온다. (...) 개미의 공동체에서 상호부조가 상호투쟁을 완전히 대체했다. (...) 꿀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꿀벌은 상호부조를 실천하는 덕택에 우리가 알다시피 넓게 분포되어 있고 또한 찬탄할 정도의 지능을 얻게 되었다. 공동으로 작업을 함으로써 개별적인 개체들의 힘을 증폭시키고, 필요한 경우에 각자의 능력을 결합하여 일시적인 분업을 이루어냄으로써, 고립된 활을 하는 동물들이 아무리 강하고 잘 무장되었다고 해도 절대로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복지와 안전을 상호부조를 통하여 획득한다. 이러한 꿀벌들의 연합은 계획적 상호지원의 활동을 게을리 하는 인간들의 경우보다 더욱 성공적이다. (...) 전쟁은 자연의 유일한 법칙이 아니다. 상호투쟁만큼이나 상호부조 역시 자연의 법칙이며, 이 법칙은 다른 조류나 포유류의 군집을 분석해보면 더욱 명백하게 나타난다.

(...) 매우 다행히도 경쟁은 동물에서도 인간에서도 철칙이 될 수 없다. 동물들 사이에서 경쟁은 예외적인 시기로 제한되고, 자연선택은 그 원리가 발현되기에 더 좋은 분야를 찾게 된다. 상호부조와 상호지지를 통해서 경쟁이 제거되면 더 좋은 조건들이 창출된다. (...) 자연선택은 지속적으로 가능한 한 경쟁을 피하는 방법을 추구한다. 「만물은 서로 돕는다」

상호부조, 아나키즘의 토대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은 그 뒤 운동 형태로만 존재하던 아나키즘에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여기서 아나키즘은 ‘무정부주의’라기보다 ‘자율주의’로 이해합니다. 대체로 아나키즘을 무정부주의로 해석하며 폭력과 테러를 연상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와 다른 새로운 세상을 꿈꿨습니다. 상호협동과 연대가 우리 사회를 유지·발전시켰다고 믿었습니다. 좌파이든 우파이든, 중앙집권화한 국가권력에 저항해온 아나키즘 운동은 상호부조론으로 탄력을 받습니다.

푸르동, 바쿠닌, 크로포트킨 같은 아나키스트 학자들은 맑스와 대립했는데, 그 논쟁의 핵심은 '소유'였습니다. 아나키스트들은 그 누구도 권력을 독점하면 그 조직은 반드시 무너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주의 또한 개인이 소유했던 권력을 다시 국가가 소유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여기며 비판했습니다. 조직화한 정치적 계급이나 정치적 조직, 규율, 권위를 거부하고 자유로운 개인의 상호부조와 협동을 통한 자율과 자치의 연대가 아나키즘의 핵심입니다. 당시, 약자에 대한 강자의 지배를 정당화한 '사회 진화론'이 제국주의에 힘을 실어주었다면, 상호부조론은 식민지 조선과 같은 약자에게 해방을 꿈꾸게 한 정치 철학의 토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⁴⁾

톨스토이는 노동운동도 다르게 보았습니다.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국가)이 오면 자본가들이 지배하던 그 자리에 노동자들이 앉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국가 권력이 작동하는 구조 속에서는 불평등이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간디 역시 영국으로부터 독립이 아닌 중앙집권화한 국가에서의 독립을 주장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도의 지배자가 그저 영국인에서 인도인으로 바뀌는 것일 뿐. 간디가 꿈꾼 이상 사회는 중앙집권 국가를 분산하고 작은 마을 공동체(마을 스와라지⁵⁾)들이 연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야 민중이 완전히 평등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폴 발레리는 아나키즘(국가를 부정하는 사상)을 정의하면서 “자

4) 한국 독립운동가 가운데 아나키스트가 많았습니다. 아나키스트가 한국 독립운동사에 절반이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독립운동가 신채호가 대표적인 아나키스트입니다.

5) '스와라지'는 힌디어로 '자치'를 의미합니다.

신의 이성이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이나 규율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태도”라고 했습니다. 「꿈에서 왕으로」

아나키즘의 핵심인 자유는 자신의 행동선택에 책임을 지고, 강요된 도그마로부터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자유롭게 결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정립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개인을 일정한 방향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든 사상이나 제도(교육도 포함 하여)가 거부된다. 그런 의미에서 아나키즘은 국가의 존재를 부정한다. 곧 국가는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는 법률을 통하여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국가에는 개인의 자유를 다수나 그 대표에게 위임하는 민주국가도 포함된다. 국가주의 교육은 그 통제권을 권 사람들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교육이다. 교육은 기존 제도를 지지하고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시민의 성격과 의지의 방향을 결정하고 조직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권위의 무기이다. 「학교 없는 사회」 (이반 일리치)

복지국가, 먼저 ‘국가’란 무엇인가

톨스토이는 풀뿌리 민중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존재가 바로 ‘국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절 국가의 모습을 생각하면, 국가는 주체적이고 어울리는 삶에 걸림돌이었을 겁니다. 톨스토이에게 국가는 사람들이 서로 돕고 나누기 위해 스스로 만든 다양한 생활 공동체를 응원하지 않을 뿐더러, 군대나 경찰, 법과 제도 따위로 직접 억압하고 휘방 놓고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즉, 국가와 인민의 자율 공동체는 양립하기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폭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국가는 약자의 편이 아니라 강자의 편에 선다. 국가가 자연의 도리를 어기는 부조리한 착취를 정당화하고 다수를 억압하기 위해 공권력을 행사한다. 심지어 국가는

그런 부조리함에 저항하는 민중에게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폭행하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도 한다. 더구나 국가는 그런 잘못을 미화하고 은폐하려 들기 때문에 더욱더 나쁜 존재이다. 이런 국가의 폭력성과 은폐는 경찰과 군대로 증명된다. 톨스토이는 군대야말로 국가의 사악한 면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봤다. (...) 톨스토이는 무질서의 혼란보다 국가의 지배를 받는 질서가 더 위협하고 나쁘다고 봤다. “정부의 부재가 정말로 부정적인 의미에서 무정부 상태를, 이 단어가 내포하는 무질서한 측면을 뜻한다고 하더라도 -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지만 - 무정부적 혼란은 정부가 사람들에게 야기한 오늘날의 상황보다 나쁠 수 없다.” (『애국심과 정부』)라는 말에서 우리는 톨스토이의 생각을 분명하게 읽을 수 있다. 이상적인 존재로 태어나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국가의 강제력 없이도 서로 자율적으로 토론하고 합의하며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사대를 훨씬 앞서 병역거부와 납세 거부를 주장하기도 했다. 톨스토이의 「국가는 폭력이다」, 하승우가 쓴 책머리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으로 탄력을 받은 아나키즘이 우려했던 것이 권력화한 거대한 국가의 통제였습니다. 그 국가가 좌우 어느 쪽이든, 사회민주주의일지라도 국가의 근본 속성은 인간의 본성인 자주성과 공생성, 주체 의식과 공동체 의식, 자발성과 협력성에 균열을 가져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더하여, 크로포트킨은 국가가 사회의 모든 기능을 흡수하게 되자 방종하고 편협한 개인주의가 나타났고 여깁니다. 이웃에 대한 인정을 점차 사라지게 한 배경으로 국가(제도)를 지목한 겁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가 늘어나면서 국민은 서로에 대한 의무를 확실히 덜게 됐기 때문입니다. 근대사회에서는 분쟁이 생기면 국가의 경찰이나 법관이 개입하고, 굶주리는 자 역시 국가가 판단하고 개입할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이전 사회와는 달리, 이제 거대한 국가 기관이 움직이지 않고서는 공동체 내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서서히 국가에 종속되면서

자주적 삶과 공생적 사람살이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나카자와 신이치는 「꿈에서 왕으로」에서 자율성을 무시하는 중앙 집권한 국가 권력이 사람을 강력히 통제하는 순간, 자연 생태 또한 사람의 개발 자원 정도로 여기게 하는 의식을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사람을 ‘도구’로 보는 사회 속에서는 자연 또한 ‘미개발’ 정도로 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했던 아나키즘은 자연에 대해서도 사람처럼 있는 그대로 다시 자연에게 돌려주자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자연생태를 마구 훼손하며 성장해온 인간 탐욕의 결과라면, 이런 이야기말로 지금 시대 다시 읽고 생각해보아야 하는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는 ‘문화’에 의해 운영되어야만 한다고 확신하는 아나키스트였기 때문에, ‘자연’의 것은 ‘자연’에게 되돌려주고자 했습니다. (...) 야만은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왕(국가)과 같은 존재를 허용한 순간부터, 인간은 마치 힘의 비밀을 ‘자연’으로부터 빼앗기라도 한 듯이, 그때까지 소중하게 여겨오던 경건한 마음가짐을 상실하고, 동물이나 식물도 단지 인간의 필요를 위해 존재하는 대상으로만 보게 되겠지요. 그러자 ‘자연’은 개발과 연구와 보호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동물이나 식물의 가축화가 이루어집니다. (...) 야만을 낳은 건 바로 문명입니다. 국가가 야만을 박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야만의 발생을 토대로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꿈에서 왕으로」

‘이웃과 인정’이란 공동체적 삶을 이상으로 품으면서, 국가의 제도 아래에서 일하는 21세기 사회복지사에게 19세기 톨스토이의 말은 낯설기만 합니다. 많은 사회복지사가 ‘복지국가’를 지향할 겁니다. 복지국가는 ‘조세정의나 분배정의가 이뤄진 사회’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이런 정의만큼 중시하는 게 있으니,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입니다. 당사자의 주체 의식과 역량을 살려 자주하게 하는가? 지역사회 사람 사이에 공동체 의식과 관계를 살려 약자와 공생하게 하는가? 사회복지사로서 사람을 도울 때는 이를 살핍니다. 적어도 자주성과 공생성은 해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회사업 윤리의 핵심입니다.

만약 톨스토이 말처럼 복지‘국가’가 이런 자주성과 공생성을 해친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로 사람들을 돕겠다고 해도 사회복지사로서 나서기 어렵습니다. 그저 따를 수 없습니다. 개인과 가족, 공동체를 대신해서 국가가 무엇인가를 이뤄주겠다는 것이 복지국가(국가 복지 의존 시스템)라면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가족, 공동체의 능력을 생동시키고 복돋는 게 복지국가(공동체 복지 응원 시스템)라면 환영합니다. 국가가 국민 사이에 공동체 의식과 관계를 기르고 생동하게 도왔을 때, 사회복지사로서는 국가의 존재에 의미가 있다고 볼 겁니다.⁶⁾ 톨스토이 시절의 폭력적 국가와 달리 보다 인간적이고 자율적인 정책과 제도를 갖춘 국가로 성장·발전했다고 여길 겁니다.

서로 기대어 살게 거드는 ‘국가’를 기대하며

어느 유럽 여행기에서 좋은 복지 제도가 오히려 가족 관계와 공동체를 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읽었습니다. 어떤 이는 오히려 아시아의 가족과

6) 가족 혹은 사적 관계로 묶인 공동체로서 이뤄지기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국가가 그 짐을 나눠 맡음으로써 가족과 공동체의 부담이 줄어들고, 당사자와 가족의 숨통이 트이고, 그 가운데 당사자의 틀레 관계가 건강하게 다져질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그렇게 국가의 지향이 가족과 공동체란 삶의 토대를 복원하고 지켜내는 데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문화가 부럽다고 합니다.7) 우리에게는 이웃 간의 인정과 나눔으로 협력했고 조금 더 어려운 일은 공동체를 이루고 그 속에서 해결해 왔던 경험이나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복돋고 응원해주는 국가를 만나고 싶습니다. 좋은 의도로 만들었다는 복지정책과 제도가 그나마 사람이 남아 있던 인간적인 관계를 봉사자와 대상자, 후원자와 수혜자, 복지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로 구분하고 나누려 한다면 조심스럽습니다. 복지국가나 노동자가 주인 된 국가에서 하는 것이라도 이는 사회사업 이상에 역행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복지국가의 제도와 시스템이 가족 사이 관계를 더 좋게 할지, 이웃 사이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할지 생각합니다. 삶이 풍요로워져도 가족과 이웃, 공동체 관계를 약하게 하거나 대신한다면 다시 생각합니다.

크로프트킨의 아나키즘은 지금도 생태운동이나 양심적 병역거부, 소비를 최소화하는 운동 따위와 같은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사업 현장에서도 이런 생각과 실천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지역 사회의 것으로,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곳에서, 당사자의 삶과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좇는 실천이 이와 닮았습니다. 뜻이 닿습니다.

어떤 사회복지사는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게 돕는 실천이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주장 같다고도 합니다. 지금도 부족한 복지예산 확

7) (노부부 안과 아이다는) 노르웨이의 노인 복지와 무상 의료와 무상 교육에 대해 끝도 없이 자랑을 늘어놓았다. 부러움을 넘어 알미울 정도로 (...) “한 마디로 말 하자면, 높은 세금과 평등한 삶, 이게 노르웨이 사회의 핵심이지.” (...) “(하지만) 얼마 전에 이 동네에서 노인 한 명이 죽었어. 자식들이 일주일쯤 지난 후에야 발견했다지 아마. 자네들, 우리 부부가 아시아를 여행할 때마다 가장 부러운 것이 뭘지 아냐? 가족과 공동체 문화라네.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지. 친구들 이진 말이야, 민주주의나 복지와는 달라. 절대 서양을 따라 해서는 안 돼.”

「같은 사람 사이로 흐른다」 (김양미·양학용)

대에 반하는 생각은 아닌지 염려된다고 합니다. 국가의 책임을 약하게 하는 편협한 지역주의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말도 들립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 사이 인정과 나눔이 갖들 자리를 국가 제도가 대신하게 될 때마다 오히려 우리가 꿈꾸는 인정 넘치는 마을 공동체와는 멀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크로포트킨은 ‘아나키즘이란 자연과학의 귀납·연역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종합을 인간의 여러 제도의 평가에 적용하려는 기도(企圖)’라고 했습니다. 국가(정책과 제도)를 넘어서는 상상. 일제 강점기 속 해방에 대한 상상이나 날지 못하던 시절 하늘을 나는 상상처럼, 상상하는 이가 많아지면 길이 보일지 모릅니다. 국가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해도, 인간이 만들어 낸 여러 제도를 보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만들어 내는 일도 이런 상상에서 시작합니다. 지금의 경제학은 200년, 국가복지는 고작 100년도 되지 않은 역사입니다.⁸⁾ 이런 제도 이전에도 우리는 서로 나누고 배려하면서 사랑과 우정을 바탕으로 더불어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좇는 미래의 모습은 이미 우리가 경험했던 오래된 경험에 있을지 모릅니다. 복지국가 그 이상을 상상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라는 바탕 위에 살아가는 지금 우리 현실. 여기서 내가 속한 국가를 더욱 인간적으로 만드는 일, 국가를 사람들이 더불어 살게 돕는 토대로 다져가는 일에는 분명한 내 뭉이 있습니다.⁹⁾ 너 하나 그런 마음 먹는다고 세상이 바뀌느냐고 묻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나아가, 더 삭막해지는 세상에 힘을 보태지는 않습니다.

8) “생태학은 우리 지구 행성 위에서 50억 년간을 지속해온 반면, 지금의 경제학은 200년 남짓 지속되었을 뿐이다. 우리가 경제가 생태학 아래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호모사피엔스라는 인간의 종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프란츠 알트의 생태적 경제기적」

9) 변화는 상상에서 시작하고, 상상은 읽고 쓰고 나누는 가운데 만들어집니다.

상호부조라는 요인은 지금까지 시야에서 보이지 않았었고 현재나 과거 세대의 작가들에게 간단하게 거부되거나 심지어는 웃음거리가 되었다. (...) 중앙집권국가의 파괴적인 권력도, 고상한 철학자나 사회학자들이 과학의 속성으로 치장해서 만들어낸 상호증오와 무자비한 투쟁이라는 학설도 인간의 지성과 감성에 깊이 박혀 있는 연대의식을 제거할 수는 없다. 모든 인간의 연대감이란 앞선 진화과정 속에서 자라난 것이기 때문이다. 「만물은 서로 돕는다」

나는 어떤 국가를 원하는가? 내가 바라는 국가는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수립하는 국가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는 국가이다. 국민을 국민이기 이전에 인간으로 존중하는 국가이다. (...)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국가가 아니라고 해서 국가를 증오하거나 비하하거나 냉담하게 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국가 안에서 국가와 관계를 맺으며 산다. (...) 좋은 정당, 민주적인 정치, 효율적인 행정을 실현하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어떤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정의를 실현할 능력 있는 국가를 만들어주기를 바랄 수는 없다. 이것은 헛된 기대일 뿐이다. 훌륭한 국가를 만드는 것은 시민들이다. 「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